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5호

서기 2004년(음력 12월 16일)  
1월 7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 내 한마음이 밝으면 다 밝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 토론하  
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  
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먹고 있는 것입  
니다. 합이 없이 하는 도리가 바로 이 도리가 아닙  
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도리를 공부하는  
데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견 대승이니 소승이  
니 하면서, 여기는 체계가 잡혔으니 잡하지 않았  
느니 하고 생각들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  
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활이 참선이요, 생활이 바로 진리요,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데 대해서는 앉았는 것도 앉  
는 것도, 눕는 것도 모두가 참선이 되고 좌선·와  
선·입선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듯하지만  
일체 만법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  
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나가는 거, 질서를 지키  
고 도의를 알고 의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러한  
전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진리를  
그대로 탐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잘못됐으니 잘  
됐으니 체계가 썼는지 안 썼는지 하고 그거 논의  
하다가,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관에 들어  
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계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죽  
은 세상 50%를 탐구해야 사  
는 세상 50%를 같이 귀찮을  
사켜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끔달림이 없  
이 윤회에 끔달리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지침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  
람들이,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  
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 하는 것을 예전에 육  
조(六祖)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니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갖추어가지고 있을  
을 어찌 알았으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  
음을 어찌 알았으니까?" 즉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족함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내 마음이  
내고 들이는 것을" 일체 만법을 말합니다. "내고  
들이는 것을 어찌 알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 천지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어서 들어  
가는 뜻을, 대천세계·중천세계·소천세계가 한  
꺼번에 들어가는 이치를 다 종합한 뜻이라고 보  
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 직결된 거를 알고,  
직결된 거를 알았으면 스스로 자유롭게 굴림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풀 범  
륜 마르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유사무四  
有(四無), 사무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일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걸 깨달으면 스스로 그렇게 청정함을 알고, 스

스로서 갖추어 있는 거를 알고, 스스로 그렇게  
구족함을 알고, 스스로 참,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자유자재함을 자기가 알고, 스스로서 그  
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갖다주고 빼어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  
을 주인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을이라는  
부처,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했죠. 한마을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게 한마을이  
요. 어떠한 그 뭐가 붙지 않는 것을 한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한마을의 도리는 돌아오  
(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마을으로 돌아가니까 육  
체도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로 인해  
서, 내가 아니라면 상대가 살 수 없고 상대가 아니  
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한꺼  
번에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참나 생활이 한꺼  
번에 결합이 된 그 뜻을 주인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공은, 즉 말하자면 전체가 한데 합  
쳐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합쳐  
진 그것을 옹광로라고도 하고 자기발전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  
다 이거는 개의치 말고 옹광로에 날기만 하는 작  
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옹광로에 날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패서 나오는 최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

고 한 그릇, 지혜, 자비!

그 다음 셋째, 그 자비로써 그냥 뒤서는 안 되겠  
다 하는 생각에서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주욱 달  
아놓고서 "하나하나 캐트리 보게!" 했던 거, 캐트  
러 보니까 두 스님은 물과 병이 전부 다 그냥 떨어  
져서 깨졌고, 부설거사가 천 거는 병만 깨져서 떨  
어지고 물은 응고돼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  
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할 때에 그 두 스님은 참 "오만과 자만, 아집을 버  
리지 못하고 이론에만 끔달려서, 큰스님한테 돌  
아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그 아집만 가졌으니 용서  
하십시오."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몸을 조이라고  
절을 했으니, 보잘것없는 나무꾼같이 생긴 그 부  
설거사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  
씀하셨죠. "우리 몸뚱이는 저 병 걸데기와 같고  
그 대롱대롱 매달린 응고된 물은 바로 우리의 성  
품과 같다." 그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은 변하  
지 않고 끔달림이 없고 여여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분 스님은 부설거사의 제자가 되  
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가 됐듯이, 그 마음 가짐이  
집이 어느 누구든지 같보지 않고, 하다못해 생각  
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지 목석이 아니든지,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이란 병  
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를 막  
론해 놓고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는 그 아량과 지  
혜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가 못 배웠을

라 이거예요. 전체가 보이  
는 걸 보니까 '아이구, 저  
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  
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  
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  
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늘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  
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다고 잘하  
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  
죠. 그리고 남너노소가 따  
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  
(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  
죠. 또 동 서가 틀이 아니  
고 남자 여자가 틀이 아니  
고, 대승 소승이 틀이 아니  
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틀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  
람과 틀이 아니요. 항상 뒤  
바뀌지더라 이거예요. 돌  
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  
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다  
주워모아서 탐아도 탐긴  
사이 가 없더라. 탐긴 사  
이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  
봐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이 이 도리를 배우는 때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  
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  
맷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  
스로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런 남의 책을 보  
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  
라서 애걸 하고 쓴다 해도 그  
는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  
을 본다 하더라도 백자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  
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를  
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때 여백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  
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다 하는 거  
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없고, 우정 내가 공부  
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  
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  
여하게 갖추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  
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되냐?' 모  
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냐?' 이러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  
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  
게 저렇게 가냐?'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달을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드려도 놓지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또 생각을 할 때는 '아이  
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는데도 안된다.' 이거죠. 안된다라는 생각까지도  
뵈야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찌부  
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살게 돼서 편찮고야, 이견 살려고 바  
둥바둥하고 '왜 놓는데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되느냐, 주인공 살려주세요.' 이러면 오히려 안된  
단 말이지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겁니  
다. 해달라던 벌써 틀이 되는 거예요. 해달라긴 누  
구더러 해달라니까? 내 마음이 안되고 있는 걸 알  
고 있는데 누구더러 해달라 하는 겁니까? 그때 아  
까 얘기하듯 내 마음이 스스로 청정한 줄 어찌 알



그림 · 최주현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제자 '아이  
구,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저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옹광로에 청정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패서 나오는 거  
는 생각지 말고 거기 놓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는 작업만 한다면 바로 부설거사가  
자기 앞의 일을 옹도에 따라서 한 거나 같겠죠. 한  
여자가 말을 못 하고 있다가 19세가 된 후 부설거  
사를 만나보고 입이 떨어졌다고. "나는 입이 떨어  
졌으니까 당신을 놓고는 못 살아.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안 한다면 나는 당신이 돌아서자마자 죽  
어버리겠다." 하니까 부설거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 앞의 일을, 사람 죽는 걸 건지  
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면 부처님께 누(禱)가 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뜻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것을 살리고 보자. 앞의 일 치우지 못  
하고 저 먼 데 치우려고 한다고 해서 치우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결혼  
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씨, 지혜!

그 다음에 두 스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아집을 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해도  
태연하고 인의롭게 마음 상치 않게 대답을 해주

때 내 모습이고, 내가 수억급 광원을 거쳐올 때 저  
런 모습을 하고 거쳐왔지 않나. 바로 나인 것이  
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  
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자  
꾸 짚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  
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짚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라 이겁니다.  
조금만 뒤편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  
면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  
이고, 미운 게 보이고 또 이쁜 게 보이고 이걸 일  
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  
서 영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  
든 것을,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 몸도 공(空)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  
는데 자꾸 짚어질 게 뭐 있는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은 맨 상봉(上峰)꼭대기에 올  
라갔을 때 비로소 둘러보니까 모두 그 위에서 내  
려다 보이더라 이겁니다. 전체를 볼 때하고 조그  
만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

**잘될까 못될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았으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갖추어가지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으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족한 걸 어찌 알았으니까? 내가 있  
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들이고 뉘을 어찌 알았  
으니까? 능히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서 자기 것이  
돼서 스스로 당당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퍼내서  
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시기를 말입니다. 이러  
게 목마른데 어느 누가 물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 있게끔 하  
고 마음을 내서 육체를 움직여주게 하고, 밭을 때  
어놓게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습  
니까? 그 갖추어져 있는데, 깨우쳤다 깨우치지 못  
했다 하기 이전에,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누가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러니 얼마나 구족합니까, 이게, 여여하고 말입니  
다. 갖추어 가지고 있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스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어  
려워서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나  
라는 조건이 앞서서, 애착이 앞서서 말입니다.

요새는 값싼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울고 짜고  
모두 그러는데 값싼 사랑을 해서 값싼 눈물을 흘  
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방울  
의 눈물이 온 바다를 이룰 수 있고, 온 바다를 한  
눈물 방울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  
러분이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천지에서 여러  
분한테 열서를 맡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  
냐?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 질문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심 이런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가령 불행이 이  
렇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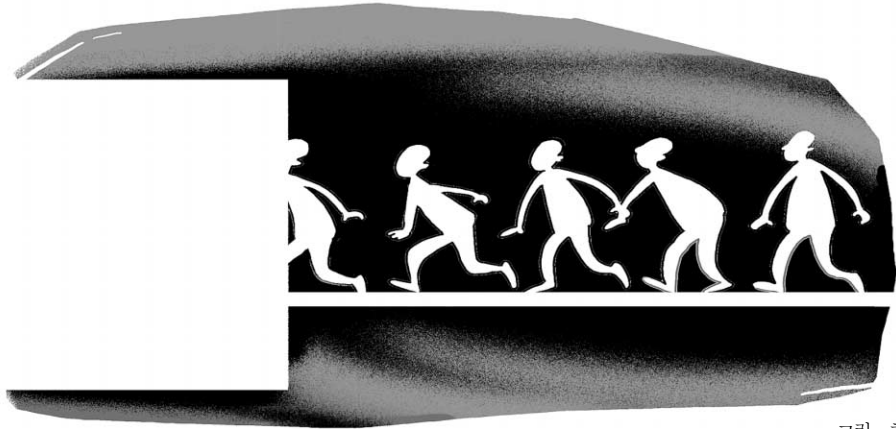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까?

▲스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거는 밥을 먹으면서도 힘이 없이 먹었습니다. 먹는 사이가 없이 먹었고 밥을 했어도 하는 사이가 없이 밥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남에게 이런 물건들(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하나 훔쳐도 내가 훔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주고 갈 뿐이고 길어갈 뿐입니다. 살 뿐입니다. 그렇게요. 그냥 주면 좋지 자기가 훔다는 생각은 없어야 하겠죠? 왜냐? 자기도 공(空)했으니까.

내가 어저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뽀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딱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비껴놓곤 어린애를 반씩 안아서 "그래, 아빠다." 하고선 "어디 가서 놀다 왔니?" 하고선 말을 하는데 저 안에서 말합니다. "아빠!" 그리고 또 부르거든요. 어린애를 탁 내려놓고 또 어머니한테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질문이었죠? 하나는 남편이 됐었고, 하나는 아버지가 됐었고, 하나는 아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공(空)했다는 얘깁니다. 모두 일체 사는 게 공했어요. 찰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그릇이에요. 공한 그릇. 그러니 여러분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당신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라. 그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한마음의 도리로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면서 놓아라 안 놓아라 하는 이런 것도 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전혀 놓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자주 자주 나오시면서 여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도 거름삼아 들으십시오.

▲질문자2: 저는 '한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큰스님의 그 높으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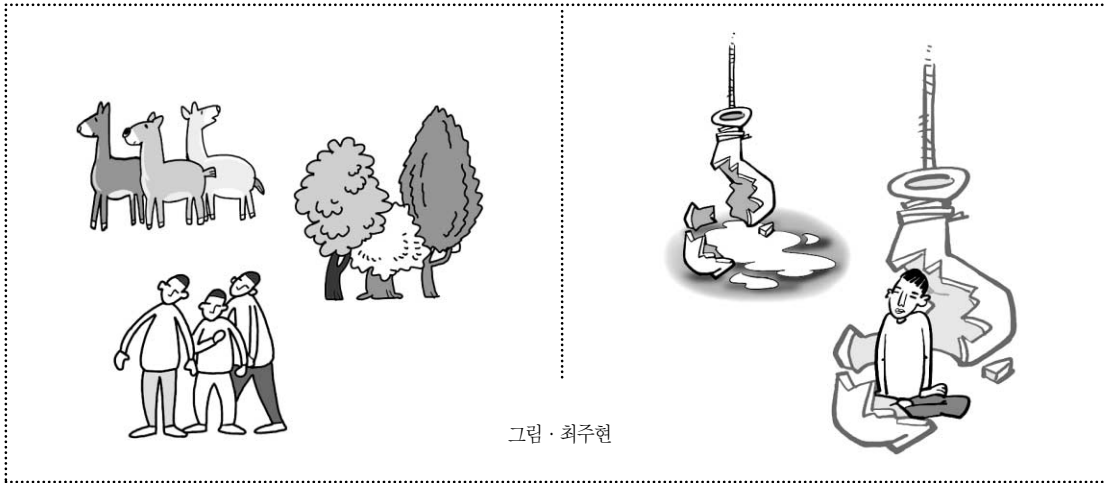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일체만법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내면의 주인공에 일임하세요

보는 사람도 그런 죄, 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딪치는 거는 강퍽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둘이 아니게.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가 맡겨놔라. 이 우주 천

개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 인과응보를 쫓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버립니다.

그때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압박과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스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통이 속에, 대뇌 속에,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공급을 해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걸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공행하는 데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현하고, 체현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적이나 크르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게 바로 회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공부 하는 데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어떠한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못났을 때, 나 못 배웠을 때, 나 가난했을 때, 나 병신이었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 바로 내 모습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인공이, 모두 결집된 주인공만이 바로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뉴욕의 여자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시다마는 산호세 갔을 때도 그렇고, 대에처럼 뇌성마비 로다가 그런 건이 생가까지도 수술을 한다고 야

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애가 뭐 정신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아빠가 너무나 정성이 지극하고, 외삼촌도 또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정성이 지극했어요. 지난번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아주 출중한 어린애가 됐어요. 그런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마음을 내주는 것도 스님이지만은 그 마음이 서로 제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방통 안에서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앉았어요. 밝게 살 수 있어요. 한 가정이 한 사람만 이런 도리를 깨우치고 나간다면은 그 가정은 다 이끌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볼 하나만 썩어 항상 밝으니가 남도 밝게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끌어간다는 얘깁죠. 우리는 이론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공행해야 이겁니다.

질문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마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가 결집돼서 현상세계에서

사는데 모든 게 약화되고 병고액난이나 가난이나 그것이 성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주의 법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마음들이, 우리 여기에 다니는 분들이 스승이나 대승이나, 체계가 없느냐 있느냐 이러한 혼란에 빠져서 자꾸 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상에 꼬달리지 마시고 전부 이 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신다면, 또 작업을 하시되 안 되는 것도 한 찰나도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놓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찰나인데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밖에 더 있나?' 하고, 병을 앓더라도 '거기서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가난이 외도 '거기서밖에 부유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유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부처 중생이 따로 없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중생들부터 다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생기죠.

그러니 우리 한마음 도리, 물러타지고 아무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은 남이 이러든 저러든 내 버려둬시다. 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한 찰나의 끈기처럼, 우리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깨지면 그 응고된 틀은 항상 흐르고 녹았다 흘렀다 하고 그렇게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하면 여러분이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지수화중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할 분이 안 계신다면 오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알든 모르든 그걸 제거하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질문할 게 뭐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것도 딱그릇인 줄 변연히 알면서 딱그릇에 얼드러진다, 풀다리도 한번 두드려봐가면서 간다. 남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힘이 없이 우

##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작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력이 오고 감이 와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설된 줄이나 저런 거는 다 볼 수 있을지언정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건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치 않아서 지혜롭게 참 마음의 자비를 그대로 중용하셔서 실천으로 공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오 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24쪽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기간: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수요일 - 매주(수) 오후 1시 ~ 3시
- ▶목요일 - 매주(목) 오후 7시 ~ 9시
- ▶지도교수: 김철승 박사
- ▶장소: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0(영흥 B/D 4F)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테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 2. 무 명 [맥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 3. 무명, 면 : 면 100% [맥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 4. 숨 없는 누비 [맥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 5. 면 목욕수 누비 [맥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 6. 꿀 덴 :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데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슈퍼제품과 미교래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아걸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방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정: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청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지장보살원력임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세백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 넘어 날마다 웃음과 기쁨 그리고 또 그러다. 옛날 어승을 바랄을 잃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층 여타다 1년다. 다시 타고 다음으로 한가리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천 지하층을 4번씩 돌며 병고를 견고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중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감하고 달마도를 팔개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정할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무로 일만 여명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00여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지연에 이른 수련의 어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켰는데 계속 불사중이며 중이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남았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발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서 이득으로 이고고 고(高)의 마음에 빛이 날 수 있게 합니다. 남았다 서원하고 있다.

**달마도 6종정품**

**문의 전화 021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합장**

**山蓼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蓼(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 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 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 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蓼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 산삼(長腦山蓼)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蓼)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 문이 쇠도 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산지주력증이 나았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 인파선이 나았다.
- ◆ 변비가 나았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았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천식이 떨어졌다.
-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 혈액이 좋아졌다.

\*스님들께는 시주물사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영제10kg, 왕기, 민대, 삼지구염소, 생강, 대추, 감초)

■ 1 Box × 60포 : 20만원 ■ 2 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 - 9242 - 8292

◆ 농업계전화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